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멕시코로: 독립전쟁시기 정치담론의 변화*

박수경
서울대학교

박수경(2018),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멕시코로: 독립전쟁시기 정치담론의 변화」,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1), 95-124.

초 록 19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전쟁은 식민지의 해체와 근대국가의 형성이라는 이중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1808년 스페인 왕정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방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식민지 크리오요가 즉각적으로 독립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스페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식민지의 자치를 요구했으나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7세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남아메리카의 독립전쟁은 이러한 크리오요 지역 엘리트로 구성된 지방위원회 중심으로 전개된 반면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전쟁은 1810년 대중봉기로 시작되었다. 대중봉기로 시작된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립전쟁은 아 이러니하게도 멕시코제국이라는 왕정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지만, 1810-1815년 독립전쟁 전반기 대두된 민중주권과 대의제에 관한 논의는 독립전쟁을 통해 멕시코라는 근대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년 만에 모습을 감춘 멕시코제국의 뒤를 이어 1824년 탄생한 멕시코연방공화국은 대중봉기로부터 시작된 독립전쟁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출현한 새로운 정치적 관념을 토대로 삼고 있다. 독립전쟁 전반기에 등장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은 식민지의 해체와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중층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본 연구는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발생한 독립전쟁을 정치사상사의 측면에서 다룬다. 이를 위해 독립전쟁 전반기의 주요 세력을 대변하는 미겔 이달고, 이그나시오 로페스 라온,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의 정치적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민중주권과 대의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관념이 멕시코라는 근대국가 수립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기술할 것이다.

핵심어 누에바 에스파냐, 멕시코, 독립전쟁, 미겔 이달고, 이그나시오 로페스 라온,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I. 들어가는 말

멕시코 역사를 서술하는 일반적인 공식에 따르면 ‘멕시코의 독립전쟁’은 1810년 9월 15일 밤 미겔 이달고 신부의 ‘독립외침(el Grito)’에서 시작된다. 미겔 이달고 신부를 뒤따르는 멕시코 민중은 과달루페 성모가 대변하는 멕시코 적 가톨릭 정서를 공통분모로 삼아 스페인의 식민통치가 가져온 사회적 모순에 대해 독립전쟁에 가담했다. 이그나시오 아엔데,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비센테 게레로 등 크리오요 지도자들의 주도로 10년간 이어진 독립전쟁은 이투르비데의 이팔라 계획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고, 1821년 멕시코제국의 이름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다. 멕시코제국은 3년만에 멕시코연방공화국으로 재탄생하며 명실공히 근대적 의미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810년부터 1821년까지 10년간 이어진 독립전쟁은 통상 4단계로 구분된다. 제1기는 1810년 9월부터 1811년 7월까지 진행된 대중봉기의 시기이다. 미겔 이달고의 독립외침을 계기로 촉발된 소요사태는 스페인 식민통치자들의 억압에 저항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는 미겔 이달고를 비롯한 반란군 지도자들의 체포와 사형으로 막을 내렸다. 제2기는 1811년 7월부터 1815년 12월까지로 모렐로스에 의해 조직적인 독립전쟁이 시도되었으며, 대중봉기를 제도적 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파칭간 헌법이 작성되었다. 이 시기 역시 모렐로스의 처형으로 막을 내렸다. 제3기는 1815년 12월부터 1821년 2월의 시기이다. 이 시기 반란군은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지 못한 채 산발적인 저항을 이어나갔으며 그 저항 역시 멕시코 남부 지역으로 제한되었고 군사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마지막 제4기는 1821년 반란군 지도자 비센테 게레로와 스페인 장교 이투르비데가 이팔라 계획에 합의하며 독립전쟁이 마무리 되는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일부 페닌슐라르와 크리오요는 스페인 본국에서 진행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누에바 에스파냐를 분리하여 식민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독립을 지지하였다. 집단마다 상이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투르비데는 종교, 통합, 독립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반란군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그 사이 누에바 에스파냐 최고수장으로 임명된 후안 데 오도노후와 코르도바 협약을 맺어 독립에 이르렀다.

Ávila·Guedea(2007, 255)가 지적하듯이 이와 같은 일반적인 서술 이면에는 스페인의 지배 아래 이미 ‘멕시코’로 전제되는 민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민족이 식민통치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중봉기를 일으켰고, 일부 엘리트 계층이 이를 지휘하며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했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독립전쟁을 바라보는 경우에도 독립전쟁 지도자를 친 민중, 친 원주민적, 개혁적 성향의 투사로서 투영하면서, 멕시코 민족사의 핵심인물로 내세웠다. 결국 역사학에서는 독립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된 ‘멕시코 민족’이 ‘스페인 민족’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독립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단순한 물음들이 생겨난다. ‘멕시코의 독립전쟁이 1810년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멕시코의 독립전쟁’이라 말하려면 ‘멕시코’는 ‘독립전쟁’에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지 않는가? 행위자가 전제되지 않음에도 행위를 기술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1810년 멕시코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인가? 1808년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스페인 왕실의 위기가 초래되기 전에 그 땅과 주민을 조직하고 있었던 정치체는 누에바 에스파냐가 아니라 이미 ‘멕시코’였던가? 1800년 전후의 누에바 에스파냐를 어떤 의미에서 멕시코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 독립 이전에 이미 ‘멕시코 민족’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대한 이와 같은 일련의 물음에는 멕시코라는 근대적 정치체, 다시 말해 국민국가의 연원에 관한 의문이 함축되어 있다. 또는 그 연원을 치밀하게 밝히지 않는 경향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문과 자각이 본 논문의 주제인 독립전쟁 제1기와 제2기에 분출된 정치적 의식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었다.

1810년 ‘독립외침’에는 ‘멕시코’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은 물론이고,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교체될 지 언정, 멕시코라는 국명에 대응하는 고유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던지 이후 멕시코라고 불리게 될 유무형의 경계를 지닌 실체가 당시에는 존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앞서 의문시했던 ‘멕시코의 독립’은 가장 반(反)역사적인 문장일 것이다.¹⁾ 근대적 의미에서 역사란 그 무엇보다 연대기적 선후관계에 따라 기억을 저장하고 배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Brading(1988)의 연구가 보여주듯, 반(反)스페인 정서에서 출발하여 과달루페 성모를 비롯한 대중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를 결합하면서 성장한 크리오요 민족주의가 그러한 실체를 예고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1810년 즈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직 정확한 표적을 잡지 못한 사회적 동요, 계몽주의에 기반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크리오요의 자의식, 페닌슐라르와 차별화된 아메리카인이라는 정체성 정도가 전부였다. 독자적 정치공동체, 특히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성립을 규정하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다양한 사회계층과 집단을 통합하는 세속적 의미의 유대감과 그러한 유대감을 뒷받침하는 정치적·행정적 제도라면, 이후에 멕시코라고 불리게 될 그것은 독립전쟁시기 당연히도 아직 독자적인 정치공동체의 구색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멕시코 민족을 전제로 삼아 독립전쟁을 이해하는 경우 독립전쟁은 군사적 의미에서 스페인 식민정부의 정규군과 반란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일 뿐만 아니라, 그 충돌을 통해 새롭게 경제지어지고 형태를 부여받는 정치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어려워진다. 즉 19세기 초반의 독립전쟁을 식민지의 해체와 근대국가의 형성이라는 이중과정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멕시코의 독립’을 멕시코라는 이미 전제된 하나의 실체의 역사적 경험으로 바라보는 대신, 독립전쟁이라는 과정 속에서 각축을 벌이며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관념을 중심으로 근대국가로서 멕시코의 출발을 이해하기 위한 지평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지평 위에서 독립이라는 사건은 스페인에서 분리되며 탄생한 독자적인 멕시코의 기원의 표식으로 이해

1) 식민지시대 ‘멕시코’는 현재 멕시코시티 지역에 거주하거나 나우아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미겔 이달고는 “este reino”, “esta America”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파칭간 헌법에서 처음으로 “America Mexicana”가 등장하지만 독립전쟁 시기동안 ‘멕시코’는 여전히 멕시코시티 지역의 주민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되다가, 1821년 코르도바 협정에서 멕시코제국(Imperio Mexicano)으로 국가명이 되었다.

되기보다 하나의 정치체가 경험한 역동적인 운동으로 다루어진다. 위와 같은 논의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10년 9월 16일 ‘독립외침’ 이후 전개된 독립전쟁의 양상과 그 안에서 태동된 새로운 정치적 관념이 헌법이라는 형태로 탄생하게 된 과정을 기술한다. 앞서 설명한 독립전쟁 제1기와 제2기에 해당하는 1810-1815년 독립전쟁의 양상과 그 시기 새롭게 도입된 정치관념의 형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겔 이달고의 정치적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법령, 이그나시오 로페스 라온의 「헌법의 기초 Elementos constitucionales」,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의 「국민의 정신 Sentimientos de la nación」에 주목하여, 이들이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어떻게 시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²⁾

II. 독립전쟁시기 새로운 정치담론의 출현

앞서 언급하였듯이 멕시코의 공식역사 서술에 따르면 독립전쟁의 기점은 1810년이다. 스페인 민족에 맞선 멕시코 민족의 저항이라는 구조 안에서 독립전쟁은 “국부(padre de la patria)”로 상징화된 미겔 이달고의 외침을 기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1953년 Villoro(2002, 43)가 1810년 이달고의 봉기를 이해하기 위해 1808년 스페인 왕정의 위기에서 비롯된 논쟁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많은 역사가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독립전쟁을 스페인 자유주의 사상의 연장선에서 파악했다. 본국과 식민지의 경제적, 사회적 ‘단절’을 강조하며 독립이라는 사건을 이해해 왔던 경향은 19세기 초 스페인과 누에바 에스파냐의 정치 엘리트가 공유하고 있었던 자유주의를 재조명하며 제도적 연속성을 고찰하게 되었다(Annino 1995; Chust 1999; Guerra 1993; 1995). 이러한 맥락에서 카디스 헌법의 의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카디스 헌법이

2) 본 연구에서 세 가지 문헌을 선별한 이유는 각 문헌이 독립전쟁시기 등장한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라온과 모렐로스가 작성한 문헌은 아파칭간 헌법의 초안으로서 독립파 내의 입장 차이를 매우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독립전쟁 시기 매우 다양한 문헌이 작성되지만 위 세 가지 문헌은 당시 정치사상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한다.

멕시코 헌법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Chust 1999; Rieu-Millan 1990; 박구병 2012; 최해성 2013). 카디스 의회는 아메리카에서 선출된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이로서 자유주의를 매개로 스페인과 누에바 에스파냐가 정치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게 되었다. 따라서 독립이라는 사건을 민족 간의 분리가 아니라 식민지의 해체와 근대국가의 형성이라는 구조적인 이중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808년의 스페인 왕정의 위기를 독립전쟁시기의 출발점으로 고려하는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독립전쟁은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7세의 부재 상황이 야기한 것이었다. 1808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는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7세를 억류하고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제국의 왕으로 옹립했다. 적법한 주권자의 부재 앞에서 스페인 각 지역은 지방위원회(Junta Provisional)를 조직하여 페르난도 7세의 복위를 주장하며 프랑스군에 맞섰으며, 적법한 주권자의 부재 상황에서 아메리카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페르난도 7세의 억류 소식은 곧바로 멕시코시티로 전해졌는데, 이는 스페인의 지방위원회들이 경쟁적으로 누에바 에스파냐의 인정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다(최해성 2013, 323). 그러나 누에바 에스파냐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레알 아우디엔시아(Real Audiencia)와 일부 페닌슐라르는 자기선언을 통해 조직된 지방위원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제를 유지할 것을 고집한 반면, 크리오요 중심의 아운타미엔토(Ayuntamiento)는 왕의 부재로 주권이 각 지역(reino)으로 반환되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Bethell 2000, 46-47). 크리오요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인디아스법령 Leyes de Indias」에서 찾았다. 이에 따르면, 인디아스위원회(Consejo de Indias)의 법부 재상태(vacatio legis)에서는 도시들이 위원회를 조직할 권리를 갖는다. 즉 아메리카 지역의 요청에 대해 인디아스위원회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각 도시 카빌도는 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시티 아

운타미엔토는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도 스페인처럼 각 도시별 위원회를 소집하여 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스스로 통치할 기관을 조직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페닌슐라르 중심의 레알 아우디엔시아는 그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이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페르난도 7세의 적법성을 의문시하지 않았다. 이 시기 위원회의 구성은 민중주권의 요구는 물론이고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다는 의미도 아니었다. 아운타미엔토를 중심으로 결집한 누에바 에스파냐 크리오요는 일정한 범위의 자치를 원했을 뿐이다. 자치주의의 관점에서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오지만, 직접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통치기관(pueblo)³⁾을 매개로 주어진다”(Villoro 2002, 47). 적법한 주권자의 부재에서 비롯된 정치담론은 이처럼 주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지만, 근대적 의미에서 주권의 담지자로서 민중 또는 국민이라는 관념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적법한 주권자의 부재 상황에서 누가 그 권위를 대행할 수 있는가를 두고 갈등이 나타났을 뿐이다.

스페인에서 자유주의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누에바 에스파냐는 식민지가 아닌 스페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역으로 재정립되었다. 1809년 스페인의 중앙위원회는 반(反)프랑스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아메리카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아메리카 지역에 이베리아 반도와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카디스 의회에 참석할 아메리카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실제로 아메리카 대표들이 카디스 의회에서 가질 수 있는 대표성과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스페인 자유주의의 집약체인 카디스 의회에서 인정한 아메리카의 정치적 위상은 식민체제가 해체되는 첫 번째 징후였다.

누에바 에스파냐를 비롯해 아메리카에서는 그러한 징후 앞에 위기감을 느낀 페닌슐라르와, 그러한 징후를 기회로 자치권을 획득하려는 크리오요의 갈

3) 여기서 왕의 권위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흔히 ‘인민’, ‘민중’으로 옮겨지는 pueblo이다. 그러나 이어서 설명하고 있듯이 여기에는 근대적 의미의 인민 또는 민중이라는 의미보다는 지방행정조직인 무니시피오 또는 카빌도를 갖춘 ‘마을’의 의미에 가깝다.

등이 표면화되면서 1810년이 라틴아메리카 독립전쟁의 기점으로 기록되었다. 동일한 배경에서 같은 해 누에바 에스파냐의 과나후아토와 케레타로에서 일부 크리오요가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려 모의했으나 식민당국에 발각되었다(Ávila 2007, 144-146). 그 결과 남아메리카의 독립전쟁이 지방위원회를 구성한 크리오요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는 지방위원회 구성 자체가 원천봉쇄 됨으로써 독립전쟁은 대중봉기의 형태로 시작되었다.⁴⁾

1810년 미겔 이달고의 독립외침으로 대중봉기가 일어난 후 독립전쟁 지도자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다양한 문헌을 남겼다. 그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쟁의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이 요구하는, 이 흐름을 해석하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 이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치적 관념을 생산하고, 표현하고, 유포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작성하고 발표했다. 그러한 관념의 변화의 절정에서 새로운 정치체의 구성, 즉 독립국가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헌법이 등장한다. 이처럼 정치적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대국가라는 정치적 관계를 최초로 규정하는 과정은 독립전쟁이라는 물리적 충돌 과정과 맞물려 일어난다.

독립전쟁의 출발점으로서 1810년과 종착점으로서 1821년을 대조시켜 본다면, 대중봉기로 촉발된 독립전쟁이 중간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립국가 탄생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Villoro 2002, 124). 1810년이 대중봉기의 해였다면 1821년 멕시코제국(Imperio Mexicano)으로의 독립선언은 사실상 ‘봉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 훗날 명명된 ‘독립외침’은 1810년 9월 15일 새벽 돌로레스 교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성격을 잘 전해준다. 그날에 대해서는 ‘회상’만이 존재할 뿐 관련된 문헌기록이 남아있지

4)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1810년 5월 시스네로스 부왕을 몰아내고 지방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카라카스에서는 4월 지방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립초기 이들 지방위원회는 페르난도 7세의 왕권을 인정했으나 곧 독립을 목표로 군사적 행동을 취했다.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양상은 지방위원회로 조직화된 독립파와 이들을 제압하려는 왕당파 간의 군사충돌이었으며 하위 사회계층은 양측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연루되었다. 멕시코와 달리 남아메리카 독립운동에서는 하위계층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분출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않다. 말 그대로 이달고의 행위는 ‘외침’이었고, 그 외침을 계기로 고작 열흘 여만인 9월 28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알롱디가(Alóndiga)를 점령하여 스페인인을 살해하고 도시를 약탈했다.⁵⁾ 그러나 그로부터 11년 후인 1821년 8월 24일 이달고와 모렐로스가 이끄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크리오요 출신의 스페인 장교 아구스틴 데 이투르비데는 반란군 비센테 게레로와 협상 끝에,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인 후안 오도노후와 「코르도바 협정 Tratado de Córdoba」을 맺는데 성공한다.

대중봉기의 성격으로 시작된 독립전쟁이 그 봉기를 진압하는 자리에 있었던 엘리트 군장교에 의해 평화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이 사실이 멕시코 독립과정을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관계 재설정을 보여주는 가장 큰 틀이다. 그러나 멕시코 독립의 신호탄이 된 대중봉기는 1810년 9월 16일 또는, 그날 시작된 소요로 제한되지 않는다. 대중봉기는 그 후 이어질 10년 동안의 독립전쟁의 발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전쟁 전반기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그러나 그 시기를 대중봉기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요인은 반란의 주세력이 농민 또는 노동자로 이루어진 ‘대중’이었다거나, 독립전쟁이 농민 및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혁명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중의 일부는 왕당파의 편에 서있었고, 반란군의 정치적 기획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크리오요 엘리트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1810년 대중봉기 이후 1812년 카디스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원주민을 비롯한 민중부문의 정치적 참여가 처음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정치적 담론은 ‘대중’을 ‘민중(pueblo)’으로 재해석해내며 ‘국민(nación)’을

5) 9월 16일 이달고의 선언문으로 알려진 글은 당일 문서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후 이달고가 서명한 것이다.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의 강렬한 벽화이미지처럼 ‘멕시코 독립’은 영웅적으로 묘사되었고, 그러한 관습에 따라 ‘독립 외침’이 텍스트를 동반하는 조직적 행위라는 사회적 상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810년 9월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조직적이지도, 통제되지도 않은, 외침이라는 행위에서 비롯된 다소 우발적인 봉기와 유사했다(De Alba 2010). 여기서 글이 아닌 소리, 즉 외침으로 시작된 독립전쟁이 글의 형식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자명한 헌법의 형태로 작성되는 과정만큼 이 시대의 격렬한 변화를 보여주는 은유는 없을 것이다.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반면 1814년 페르난도 7세가 복귀하고 1815년 모렐로스가 처형된 후 코르도바 협정이 조인되는 1821년까지의 시간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전반기와 달리 뚜렷한 정치적 담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남쪽의 비센테 게레로, 베라크루스 지역의 과달루페 빅토리아, 바히오 지역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미나가 1815년 이후에도 각지에서 전쟁을 이어갔으나, 1819년 즈음에는 비센테 게레로의 반란세력만이 그 명맥을 유지했으며, 정치적 ‘발화’는 이미 그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반란군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전투를 이어 나갔을 뿐 정치적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미 파편화된 각지의 반란군을 결집시킬 정치적 기획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15년 모렐로스 처형 이후 반란군 측에서 작성된 문헌 가운데 내용상 주목할 만한 것은 1817년 4월 하비에르 미나가 작성한 호소문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비에르 미나는 4월 25일 호소문에서 자신이 독립전쟁에서 밝아온 궤적을 그리며 스페인인들을 향해 아메리카의 독립을 설득한다(Xavier Mina 2007).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해소되지 않았던 독립전쟁 지도부의 분열은 모렐로스 사후 더욱 가중되었고, 지도부 가운데 지식인 계열이 군사 지도자 계열을 압도함으로써 군사적 열세를 타파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군사적 열세의 지속은 정치적 담론의 진전을 막아섰다. 따라서 독립전쟁시기 정치담론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제1기와 제2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독립전쟁 제1기와 제2기 주요세력의 등장과 정치담론

1. 1810년 대중봉기의 시기

앞서 지적했듯이 독립전쟁의 시작은 준비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거나 이념적 지향을 밝히는 등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합리적이지만 우발적인 대중 봉기였다. 1809년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려는 크리오요 세력이 진압당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미겔 이달고, 이그나시오 아옌데, 후안 알다마,

호세파 오르티스 데 도밍게스는 그 외침에 부응한 돌로레스 교구의 대중들 덕분에 독립전쟁의 선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810년 9월 16일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⁶⁾ 반란군 측에서는 내부 통신문과 반란군 참여를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반면, 누에바 에스파냐 식민정부 측에서는 반란 사실을 보고하는 지방정부의 보고서와 반란진압을 지시하는 중앙정부의 명령서, 공고문, 칙령이 잇달았다. 군사적 용도로 작성된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1810년 10월 19일 바야돌리드에서 미겔 이달고의 요청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반란군의 첫 번째 공시문(bando)이 호세 마리아 데 안소레나의 이름으로 공표되었고, 한 달 남짓 후인 11월 29일 과달라하라에서 미겔 이달고는 아메리카 최고군사지도자의 자격으로 공시문을 발표한다.⁷⁾ 여기서 미겔 이달고는 “법률과 동일한 위상으로 적용될 일련의 선언”을 발표한다. 첫째, 노예제를 폐지하고, 둘째, 사회적 신분에서 따라 식민체제가 부여했던 인두세(tributo)의 의무를 철폐하며, 셋째, 알카발라(alcabala) 부담을 경감시키고,⁸⁾ 넷째, 법률적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다섯째, 화약제조를 자유화하여 군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한편, 주류 생산과 유통도 자유화하며, 여섯째, 모든 무역제한을 폐지하며, 마지막으로 담배잎 재배와 유통 역시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주일 후 12월 6일 위와 동일한 내용이 「노예제, 세금, 무역제한을 철폐하는 법령 Decreto contra la esclavitud, las gabelas y el papel sellado」로 발표된다.

채스틴(2011, 136)에 따르면 노예제 폐지는 징병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미겔 이달고 개인의 도덕주의자적 성향이 낳은 결과이며, “이런 조치는 실제 이달고의 이상 속에서만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문헌은 법령

6) 웹사이트 Biblioteca Garay(www.biblioteca.tv)에는 정복시대부터 현대까지 멕시코 정치문헌들이 연대기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본 논문은 “500 años de México en documentos”이라는 카테고리에 연도별로 정리된 독립전쟁시기 문헌의 전반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7) 여기서는 Guedea(1998, 22-24)에 수록된 버전을 참고한다.

8) 알카발라는 토지, 가옥, 가축 등의 판매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으로서 실효성 보다는 선언으로서 가지는 방향성에 더 주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독립전쟁시기 첫 번째 정치적 의식의 표출로 위 법령들을 살펴본다면, 반란의 군사적 성공을 위한 전략도, 현실과 괴리된 정치적 도덕적 이상의 표현도 아닌 진행 중인 반란을 배경으로 배태된 정치경제적 기획으로 읽어낼 수 있다. 위 항목에서 폐지 또는 축소된 노예제, 세금, 무역은 가푸친(gapuchines)이라고 불렸던 스페인 식민통치자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식민사회를 구성하는 신분구조에서 가푸친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게 강제된 억압구조의 철폐를 담고 있다. 노예제와 인두세의 폐지는 최하층집단을 이루던 원주민과 노예집단을 억압구조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이며, 무역 거래의 제약과 상거래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은 크리오요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 법령을 통해 이달고는 스페인과의 종속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셈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독립전쟁의 첫 번째 선언문이자 종속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이 문서에서 종속의 대상이 특정계층으로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문서를 통해 1810년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시작된 독립전쟁은 말그대로 대중봉기의 성격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조직화되지 않은 무장한 대중은 미겔 이달고의 텍스트에서 “국민(nación)”으로 옮겨진다.⁹⁾ 그러나 여기서 국민은 온전히 근대적 의미를 획득한 용어라 볼 수 없다. Quijada(2003)에 따르면 식민지 시대 국민은 첫째 문화적으로 특정 종족집단을 지칭하는 용어, 둘째 특정한 영토에 결속되어 있는 상태, 셋째, 제도적으로 군주나 정부에 종속된 특정 지역을 지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달고의 공시문에서 “아메리카”라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된 “국민”에도 위 세 가지 용법이 중첩되어 있다. 이처럼 1810년 대중봉기 직후 등장한 ‘국민’은 이후 정치적 대표성과 주권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개념으로 변화한다. 다른 아닌 미겔 이달고가 국

9) 이 공시문은 “용기있는 아메리카 국민이 300년 동안 자신을 억압한 무거운 족쇄를 끊기 위해 무기를 든 결정적인 순간 이후, 우리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조세 부담을 철폐하는 것이었다”(Guedea 1998, 22)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민의회(Congreso Nacional) 구성을 제안하며 ‘국민’을 규정하는 문제에 다가가기 시작했다(Hidalgo 1810c). 이 제안서에서 그는 카디스 의회에서 제기된 아메리카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인을 배제하고 누에바 에스파냐의 독자적인 왕의 이름으로 통치할 지방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를 제안했다.

다른 한편 이달고는 12월 5일 「원주민공동체 토지 반환령 Decreto de Miguel Hidalgo ordenando la devolución de las tierras a los pueblos indígenas」(Hidalgo 1810b)을 발표하여 봉기에 가담한 대중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Tutino (1990)는 이달고의 봉기가 식민체제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농촌봉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조명하며 농촌봉기의 역사 속에서 1810년을 분석하는데, 바히오 지역에서 대중봉기가 발생한 원인과 과달라하라에서 반란군 세력을 재규합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지역의 경제적 배경에서 찾았다. 즉 바히오 지역은 1750년대 이후 아시엔다에 종속된 농촌경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었으며, 11월 초 부왕령 정규군에게 패배한 후 반란군이 당도한 과달라하라는 1750년대 이후 토지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원주민공동체가 다수 존재했다(Tutino 1990, 146-157). 바히오 지역에서는 농촌노동자가, 과달라하라 지역에서는 원주민공동체 구성원이 반란군에 가담했다. 과달라하라는 봉기가 시작된 바히오 지역 이외에 이달고가 유일하게 대중적 지지를 받은 곳이었다. 따라서 원주민공동체 토지 반환은 과달라하라 지역의 대중적 요구가 반영된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정치적 지향은 곧이어 내부적 모순에 빠진다. 이달고의 봉기는 농민운동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이어지는 독립전쟁은 엘리트의 자유주의 정치운동과 병행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점차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꾀하게 된 크리오요와 여전히 토착적 성격을 유지하는 대중의 욕구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달고가 “국민”으로 표현한 계층통합적 요구란 불가능하다. 이는 노예제 폐지와 무역제한을 철폐시킨 법령에도 이미 함축되어 있는 딜레마였는데, 독립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크리오요 계층이 바로 노예 소유주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중봉기를 통해 표출된 ‘현재적’ 요구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정치적 기획에 담겨있는 ‘미래’의 요구를 타협시키기 위해 그가 택한 전략은 ‘페르난도 7세’로 인격화된 왕정과 가톨릭이었다. 이 두 가지 전략 가운데 후자인 가톨릭은 종교로서,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지배하는 하나의 ‘문화’로서 독립 이후까지도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전자인 왕정은 이달고를 계승한 모렐로스에 의해 곧바로 문제시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독립전쟁시기 정치적 관념의 출현과 변화를 규정짓는다.

독립외침으로부터 6개월 만인 1811년 3월 미겔 이달고, 아엔데, 알다마 등 반란군 초기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처형된다. 그동안 이달고를 비롯해 반란군의 이름으로 발표된 법령과 포고문은 반란의 성격을 밝히고 동참을 선동하는 선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반란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기도 했다. 형식적으로 미겔 이달고는 ‘민중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출된 총사령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지위와 그가 발표한 소위 ‘법령’등은 형식적 정당성을 가지지는 못했다. 흔히 그들의 뒤를 이어 이그나시오 라온, 호세 마리아 리세아가,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등이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일컫지만, 사실상 그들은 이달고 사후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이유로 무기를 들었던 다수의 군벌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Macías 1973, 42). 어느 대중봉기가 그러하듯 봉기의 선구자가 사라진 후, 그가 맡았던 중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모렐로스를 이달고의 뒤를 이은 반란 2세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달고의 정통성을 제도적으로 계승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스스로 정통성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Macías(1973, 43)의 표현대로 “그들 대부분은 당대의 판초 비야들이었고, 모렐로스 만이 정치적 지향을 가진 군벌로 변신할 것을 예고했다”.

다시 말해, 모렐로스는 각지 반란군의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도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정당성을 근거로 대중봉기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경제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인식했다. 1812년 여

름에 작성된 이그나시오 로페스 라온의 「헌법의 기초」와 같은 해 4월 작성되어 이듬해인 1813년 9월 14일 아나우악 의회 개회사로 발표된 모델로스의 「국민의 정신」은 그러한 인식의 산물이자, 동일한 인식 앞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정치적 관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아파칭간 헌법의 토대가 될 두 개 문서는 이달고 처형 이후 반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2. 1811년 대중봉기의 제도화

초기부터 반란군의 전투를 지휘한 모델로스는 현재의 게레로 주와 미초아칸 주를 장악했다.¹⁰⁾ 그는 이달고의 처형 후에도 진군을 거듭하여 1813년 초에 이르면 아카풀코와 오아하카까지 점령하고, 멕시코시티를 제외한 주요 지역을 반란군의 수중에 넣었다(Ibarra 2004, 233). 점차 세력을 확장한 모델로스는 독립전쟁을 이어 가기 위해 통치지역 내부의 정치질서를 확보 할 필요성을 의식한다.¹¹⁾ 그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통해 반란이라는 상황이 만들어 내는 정치적 변동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정치적 기획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조건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였다.

라온 역시 초기부터 이달고의 반란군에 합세한 인물로 의회 설립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페르난도 7세를 대리할 위원회를 소집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명령이 내려진 후 이달고의 반란에 가담하게 된 라온은 이달고의 각료로서 반란군 기관지인 「아메리카의 각성 El Despertador Americano」¹²⁾을 발행하는 등 초기 반란군의 정치담론을 생산했다. 그는 1811년 3월 21일 이

10) 1810년 10월 20일 이달고는 모델로스에게 남부 해안지방에서 군사행동의 권한을 위임했다(Hidalgo 1810a).

11)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라온에게 보내는 회신에서 모델로스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우리는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한참 전부터 우리의 전진을 막는 방해물들을 피하길 원했습니다. 그런 방해물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어서 저는 제 옷까지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간신히 군대를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불씨를 지피기 위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빵을 반죽할 때입니다”(Morelos 1811).

12) 1810년 12월 20일 1호가 발간된 후 1811년 1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7차례 발행되었다.

달고와 아엔테가 체포되기 직전인 3월 16일 호세 마리아 리세아가와 함께 사령관에 임명되었다(Ávila 2002, 149).

1811년 4월 22일 라온과 리세아가는 성명서를 통해 스페인 왕정의 위기를 언급하며 “아메리카는 가톨릭법을 보존하고 페르난도 7세의 온전한 권리를 유지시키는 의회 또는 국민위원회(Junta Nacional)의 설립을 추구한다”고 밝히며, “조국(patria)”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강탈과 황폐화의 중단을 선언했다(Lopez Rayón·Liceaga 1811). 곧이어 7월 13일 라온은 모렐로스에게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반란을 제도화시키는 계획을 구체화 했다. 앞서 살펴 보았듯 군사적 전략에 따라 정치적 구심점의 필요를 인식한 모렐로스는 라온의 제안에 긍정적 회신을 보냈다(Morelos 1811). 이로써 반란을 주도한 미겔 이달고의 ‘선언’은 반란 2세대로 승계되고, 반란 2세대는 그 선언을 제도화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화는 주권, 국민, 대의제와 같이 이미 확산되고 있던 새로운 관념을 통해 정치적 관계를 표명하는 과정이었다. 즉 1808년부터 대중봉기가 시작된 1810년과 반란 2세대가 등장한 1811년까지도 유효했던 ‘주권자로서 페르난도 7세’를 거부하며, 자치파와 차별화 되는 과정이었다.

1815년 아파칭간 헌법은 이러한 모렐로스와 라온의 기획이 공적 무대에서 승인되고 정치적 담론으로서 힘을 얻게 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1811년 국민위원회 구성이라는 모렐로스와 라온 공동의 관심사가 4년 후 헌법으로 공표될 때까지는 많은 의견 충돌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충돌은 사실상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모렐로스가 지녔던 군사적 주도권의 영향으로 아파칭간 헌법이 공표됨으로써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을 뿐이다.

그러한 제도화 과정의 출발점은 라온과 모렐로스가 합의한 아메리카최고국민위원회(Suprema Junta Nacional Americana)의 구성이었다. 일반적으로 시타쿠아로 위원회(Junta de Zitácuaro)로 불리는 이 협의체의 구성이 1811년 8월 21일 공시문(Bandos 1811)을 통해 공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라온은 위원장으로, 호세 식스토 베르두스코와 리세아가는 위원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이 공시문에 나타난 “선출되었다”는 표현이 갖는 의미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위 공시문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라온을 포함해 총 13명이 모였다. 그들은 반란군 지도자이거나, 베르두스코처럼 군사지도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다는 원칙을 세우되, 위원회의 출범은 3명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에 기반하여 3명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그 투표 결과 라온은 12명의 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그 뒤를 이어 각각 7표와 4표를 얻은 식스토 베르두스코와 리세아가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말하자면, 시타쿠아로 위원회는 카디스 의회처럼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구성되거나, 무니시피오의 카빌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었다.¹³⁾ 즉 선거에 의한 대표성도, 권위에 의한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협의체였다.

라온과 모델로스가 자각했듯이 독립전쟁은 ‘정부’의 구성 또는 통치관계의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필요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다. 1808년 발생한 통치정당성의 균열은 ‘주어진 주권자’ 즉, 왕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그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인위적’ 구성이 필요해졌다. 인위적 구성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주권에 관한 새로운 논의와 그러한 논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대의제였다.

시타쿠아로 위원회는 이 두 가지 사항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못했다. 즉 주권자로서 왕에 대한 입장은 이달고가 주도했던 초창기 반란군의 담론과 연속선 상에 있었다. 예를 들어, 1811년 9월 4일 위원회의 이름으로 모델로스에게 도착한 서신에서 이들이 페르난도 7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신에는 반란군 스스로 왕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는 언급을 하며, “실질적으로 우리는 왕을 거역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염려일 뿐”이며, “우리의 계획은 실

13) 나폴레옹의 침입 직후 스페인 각지에서는 행정통치단위로서 무니시피오를 토대로 지방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방위원회는 1809년 중앙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시행했다. 아메리카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카디스 의회를 구성하여 1812년 카디스 헌법을 제정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나폴레옹과 전쟁 중에 이루어진 선거이며, 아메리카에서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선거가 진행되었고, 그나마 선출된 아메리카 대표들 가운데 매우 소수만이 카디스 의회에 참석하는 한계가 있으나 카디스 의회는 히스패닉 세계가 경험한 첫 번째 자유주의 정치현상이었다.

질적으로 독립이지만 그것이 페르난도의 이름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Carta 1811)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타쿠아로 위원회는 여전히 페르난도 7세의 권위에 기대고 있으며, 무엇을 대표하고, 어떻게 대표하며, 그 대표들을 통해 무엇을 구현하려 하는지 불분명했다. Macías(1973, 49)에 따르면 “시타쿠아로 위원회는 독립을 위해 싸우는 반란군이 아니라,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크리오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런 점에서 군사 지도자였던 모델로스가 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 대중봉기로 시작된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리오요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온과 모델로스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중앙정부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한 후 실제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의제에 천착할 수 밖에 없었고, 대의제와 페르난도 7세의 주권을 어떻게 타협시킬 것인가라는 쟁점에 부딪혔다. 이달고와 라온을 비롯한 반란군 지도자나 크리오요 뿐 아니라 대중 역시 “페르난도 7세에게 충성”을 표하며 반란행위를 합리화 했다. 정치적으로는 왕당파, 자치파, 독립파가 구분될 지 언정 문화적으로 그들 대부분은 왕정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치파는 미래를 향한 정치적 기획과 과거의 정치문화 사이에서 모순적인 현재를 영위하고 있었다. 스페인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입헌군주제를 통해 ‘자연적으로 주어진’ 주권자와 ‘인위적’ 사회체의 화합을 도모했지만, 부재 중인 왕의 이름에 충성을 맹세하며, 왕이 보낸 식민정부관료에 반기를 드는 행위와 쉽게 화합되지 못했다. 반란군에 맞선 펠릭스 마리아 카예하(Calleja, 1811)는 시타쿠아로 위원회를 반역자로 규정하며 “우리들의 주권자 페르난도 7세”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정당성은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스페인 본국의 최고국민의회(Supremo Congreso Nacional)와 이곳에서 파견한 부왕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베네가스¹⁴⁾에게 있었다.

14)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베네가스는 1810년 9월 14일부터 1813년 3월 4일까지 누에바 에스파냐의 부왕이었다. 1811년 장교로 반란군 진압에 나서 미겔 이달고, 아엔데 등을 사로잡는 데 공을 세운 펠릭스 마리아 카예하는 그의 뒤를 이어 1813년 3월 4일부터 181년 9월 20일까지 부왕의 자리에 있었다.

3. 1812년-1813년 정치적 정당성의 재규정

라온이 「헌법의 기초」(Rayón 1812)를 발표한 1812년 4월 30일부터 모렐로스가 칠팡싱고 의회 개회사로 「국민의 정신」을 낭독한 1813년 9월 14일까지 그러한 쟁점이 표면화되었다. 시타쿠아로 위원회를 해산시키려는 카예하 휘하 군대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1811년 말 시타쿠아로를 빠져나온 위원 3명은 반란군의 군사적 약세와 함께 정치적으로 내부 분열을 겪었다. 위원 3명은 군대의 추적을 벗어나 위원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일단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각자의 근거지를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만 매진함으로써 사실상 중앙정부를 구성하려는 시타쿠아로 위원회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Macías 1973, 52-53). 라온은 이러한 배경에서 와해되어 가는 위원회를 재결집시키고자 「헌법의 기초」를 작성하는 한편, 1812년 6월 모렐로스를 4번째 위원으로 임명했다. 라온은 위원회를 강화하여 반란군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그 결과는 라온의 기대와 달리 나타났다. 모렐로스는 라온이 발표한 「헌법의 기초」에 관하여 다른 입장을 표명했으며, 라온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했던 베르두스코와 리세아가 각자의 근거지에 머물며 사실상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정치적 지향을 두고 라온과 모렐로스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다. 모렐로스는 라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군사적 기반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온과 모렐로스의 정치적 지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곳은 「헌법의 기초」 4항과 5항의 내용이었다.¹⁵⁾

15) 「헌법의 기초」는 강령에 해당하는 짧은 서문, 38개 조항, 아메리카인들을 향한 격려와 은총을 비는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38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 3개 항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가톨릭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조항은 지역 대표자들이 선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Supremo Consejo),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가위원회(Consejo de Estado)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특이할 점으로는 33항에 따라 독립의침이 있었던 9월 16일, 이달고와 아엔데의 탄생일, 과달루페 성모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자유주의 또는 공화주의 이념과 함께 가톨릭에 대한 특권보장을 우선시 하는 태도는 19세기 정치사상사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4항: 아메리카는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5항: 주권은 직접적으로(inmediatamente) 민중에게서 나오며, 페르난도 7세에게 머무르며, 아메리카최고국민위원회가 행사한다.

이 문서가 발표되고 수개월 후 1812년 11월 7일 모렐로스(Morelos 1812b)는 라온에게 의견서를 보낸다. 이 의견서에서 모렐로스는 「헌법의 기초」가 이달고의 담화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특히 5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는다. “페르난도 7세의 주권에 관한 5항과 관련하여,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며 명백하기에 헌법을 공표하려면 그 점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온은 페르난도 7세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주권을 행사하는 권위체를 아메리카최고국민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장으로서 자기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해 둔다. 이와 반대로 모렐로스는 더 이상 페르난도 7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대의제 기구로 기능할 방법을 모색한다. 라온에게 의견서를 보내기 전인 1812년 9월 12일 모렐로스(Morelos 1812a)는 이미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에 대한 발상을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대표가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한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요지역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시타쿠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4명은 군사작전 지휘를 책임지고 5번째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 정부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주권’을 둘러싼 라온과 모렐로스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는 와중에 1812년 11월 말 모렐로스는 오아하카를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반란군 내에서 모렐로스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다. 모렐로스는 5번째 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라온과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그에게 결정적인 해가 될 1813년을 맞이했다.

1812년 12월 16일 새로운 점령지 오아하카에서 모렐로스는 라온에게 서신을 보내 오아하카를 통치하기 위한 5번째 위원 선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라온은 이듬해인 1813년 1월 비야우루티아를 위원으로 추천하지만, 3월 모렐로

스는 5번째 위원을 오아하카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아빌라(Ávila 2002, 158)가 지적하듯이, 위원 임명제에서 선출제로의 변화 덕분에 5번째 위원은 단순한 위원이 아니라 반란군 점령지역 가운데 일부의 대표자라는 의미를 얻게 되었다. 그 후 모렐로스는 페르난도 7세의 이름으로 성립된 시타쿠아로 위원회를 국민의회(Congreso nacional)로 교체하며 독립전쟁을 법률적 틀에서 사고하고, 정부구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

라온과 모렐로스 사이에서 보여진 주권자로서 페르난도 7세에 관한 입장 차이는 자치파와 독립파의 분기, 근대적 주권 담론의 도입, 대의제의 수용과 같은 결정적인 사안을 배태하고 있는 쟁점이었다. 국민국가 멕시코는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간결한 대응의 누적을 통해 출현했다. 그 대응이 즉각적이고 간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안의 출현과 대응 모두 전쟁이라는 일탈적 조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온과 모렐로스 가운데 1813년이라는 결정적인 해를 특징지은 쪽은 군사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한 모렐로스였다. 모렐로스는 독립전쟁을 이끌어어나가기 위해 크리오요의 지원을 이끌어낼 위원회가 필요했고, 곧이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 모렐로스는 페르난도 7세를 대체할 주권체인 의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처럼 페르난도 7세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각, 독립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정치적 통치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교차하는 곳에서 국민주권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관념이 출현했으며, 그 관념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의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멕시코라는 국민국가는 그 모든 갈등과 논의 속에서 서서히 형상을 드러냈다.

의회 구성에 관해 카를로스 마리아 데 부스타망테는 군사 지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방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회의 수립을 통해 여러 지역이 반란군에 협력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Ávila 2002, 163). 이 제안에 따라 1813년 6월 28일 테판에서 첫 번째 소집령이 발표되었다. 아카풀코에서 모렐로스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공고문에 따르면,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각 지방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우리의 계획은] 의회의 구성이다. 의회는 지방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원은 각 지방의 권리를 증진시킨다. 지방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방의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교구에 기반한 하위행정구역(subdelegación)은 카베세라에 모여 다수결로 테판의 선거인을 임명하기 위해 사제, 군지휘관, 공동체 및 주민을 소집한다.(Morelos 1813a)

1813년 9월 모렐로스가 점령한 5개 지역에서¹⁶⁾ 선거가 진행되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선거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선거구도 선거명부도 선거시행세칙도 불분명했다.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유지가 대표자가 되었고, 원주민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관습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광산에서는 조합이 선거를 진행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는 선거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실제로 선출된 의원은 오아하카의 호세 마리아 무르기아와 텍판의 호세 마누엘 데 에레라 뿐이었고, 다른 의원들은 모렐로스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Macías 1973, 78). 그렇게 1814년 9월 8일 칠팡싱고 의회가 구성되었다.¹⁷⁾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개회를 알리며 1813년 9월 14일 칠팡싱고에서 모렐로스는「국민의 정신」을 낭독했다. 라온의「헌법의 기초」가 가톨릭 수호에 관한 조항으로 시작되었다면, 모렐로스의「국민의 정신」은 아메리카의 독립을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¹⁸⁾

1항: 아메리카는 스페인을 비롯한 기타 다른 국가, 정부, 왕실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임을 천명한다.

16) 5개 지역은 오아하카, 텍판, 푸에블라, 베라크루스, 멕시코이다.

17) 라온은 모렐로스가 추진하는 선거와 의회의 구성에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모렐로스는 라온을 과달라하라 의원으로 임명하고, 칠팡싱고 의회에 출석하기를 요청했지만, 라온은 왕당파 군대의 공격을 피해 칠팡싱고로 피신해 와서도 모렐로스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8) 「국민의 정신」 1항의 내용이 「헌법의 기초」의 4항에 해당되며, 2·4항이 1·3항에 해당한다.

「헌법의 기초」에 등장했던 페르난도 7세는 자취를 감추고, 이제 주권 개념은 새롭게 정의된다.

5항: 주권은 민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며, 민중은 주권을 아메리카최고 국민의회에 위임한다. 아메리카최고국민의회는 지역별로 동등한 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6항), 자유주의 정부가 전제군주를 대체하며(11항), 의회가 제정하는 법이 최고 권위를 지닌다(12항). 이로써 정당성을 확보한 최초의 대의제 기구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선출이라는 절차에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확보하려는 주권체, 그 탄생을 스스로 선언함으로써 담보된다. 절차와 법적 근거가 아닌 자기선언으로 정당성을 마련하는 것이 최초의 제한권력이 탄생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칠광싱고 의회는 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되찾아왔다. 중세 스페인 정치전통에 따르면 주권은 민중에게서 나오며, 왕에게 있다. 따라서 스페인 왕실의 위기로 인하여 주권은 본래 그것의 기원이었던 민중에게 “되돌아왔고”, 이제 의회에게 있다. 주권의 담지체로 새로 등장한 의회가 페르난도 7세를 대체한다는 사실이 ‘독립’에 담겨 있는 정치적 의미였다. 주권이 페르난도 7세에게 있음을 주장했던 라온도 주권의 기원이 민중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단지 주권의 담지자를 재설정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민중에게서 나온 주권을 민중의 대표자인 의회가 행사한다는 새로운 논리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논리는 법제정을 통해 구현되었다.

1814년 페르난도 7세는 복위한 후 카디스 의회가 이룩한 자유주의의 결실을 무효화 시키는 법령을 발표했다. 그 법령에 따라 자치파든 독립파든, 페르난도 7세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스페인 식민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칠광싱고 의회는 법제정이라는 권한을 활용했다. 이제 합법/불법 또는 정당/부당의 기준은 더 이상 단일하지 않다. 그 권한을 토대로 「국민의 정신」을 초안으로 삼아 작성된 아파칭간 헌법이 1814년 10월 22일 공포되었다. 비록 이 헌법은 실제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사장되었지

만 1810-1815년 동안 표출된 정치적 관념이 가장 치열한 형태로 투영되었다. 아파칭간 헌법은 그에 앞선 미국, 프랑스, 스페인의 초기 헌법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구조를 벗어나지 않지만(Peset Reig 2014), 당시 이미 널리 사용되던 국민 주권(soberanía nacional) 대신 민중주권(soberanía popular)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위를 향한 복종을 요구 받기보다는 공공선을 위해 희생하는 적극적 시민 개념을 도입하여 보편적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Rabasa 1994, 89). 이로서 이달고의 노예제 폐지에서 엿보이기 시작한 ‘국민’ 개념은 주권의 담지자를 둘러싼 라온과 모렐로스의 논쟁을 거쳐 아파칭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IV. 나가며

후대에 ‘독립전쟁’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1810년 독립외침부터 1821년 이 팔라 계획까지도 ‘독립’과 ‘자치’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당대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었다(Rojas 2003, 45). 정치적 전략 여부를 떠나, 이달고와 라온 역시 페르난도 7세로 인격화된 스페인의 권위와 단절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반면 1813년 11월 6일 아나우악 의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북아메리카독립선언문 Acta solemne de la declaración de la independencia de la América septentrional」에서는 ‘독립’의 의미를 명시하며, 독립전쟁을 위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유럽인을 보호하는 행위를 반역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역설적이게도 이 선언문은 멕시코의 공식 독립선언문으로 여겨지는 1821년의 「독립선언문」과는 몇 가지 점에서 대조적이다. 1821년 「독립선언문」은 “300년 동안 자유의지를 가진 적이 없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 본 적이 없는 멕시코는 그동안의 억압에서 오늘 벗어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억압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멕시코의 역사를 300년으로 서술함으로써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되었던 민족주의적 역사관의 출발을 알리고 있다. 독립을 선언하고 있으나, 누구로부터의 독립인지,

독립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 경계는 희미하다. 여기서 제국최고위원회(Junta Suprema del Imperio)는 스페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주권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페르난도 7세를 독립국인 멕시코 제국의 황제로 추대하며, 가톨릭 종교, 멕시코의 독립, 스페인과의 화합이라는 “3대 보증”을 약속하는 역설이 비롯된다.

독립이 식민지의 해체와 근대국가의 수립이라는 이중과정을 의미한다면 독립전쟁의 기점이 되는 1810년 이달고의 외침에서도, 종결점이 되는 1821년 「코르도바협약」에서도 그 이중과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중과정은 새로운 주권체로서 ‘국민’의 등장을 통해 교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국민’을 규정하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식민체제에서 근대국가로의 전환과정은 주권담론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국민’이라는 관념에서 관찰된다. 1810년부터 1815년까지 독립전쟁 제1기와 제2기는 식민체제의 해소를 위한 군사활동 뿐 아니라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집단을 규정하기 위한 정치담론의 각축장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김은중(2014),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네이션, 내셔널리즘-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그 너머」, 중남미연구, Vol. 33, No.1, pp.269-300.
- 박구병(2012), 「세계에 비취 본 유럽: 아메리카노의 독립투쟁과 에스파냐 자유주의의 변화 1808-1823」, 서양사론, Vol. 112, pp. 298-319.
- 최해성(2013), 「카디스 헌법(1812)의 횡대서양적 의미- 누에바 에스파냐의 수용과 독립을 중심으로」, 스페인어문학, Vol. 67, pp. 315-337.
- 멕시코대학원역음(2011), 『멕시코의 역사: 농경의 시작부터 뉴밀레니엄까지, 멕시코 역사의 모든 것』, 김창민 옮김, 그린비.
- Chasteen, John Charles(2011), 『아메리카노: 라틴아메리카의 독립투쟁』, 박구병 외 옮김, 길.
- De Alba, Luis Gozáles(2010), “독립에 얽힌 거짓말들”, <http://translatin.snu.ac.kr/translatin/1003/pdf/Trans10031106.pdf>
- “Acta solemne de la declaracion de la independencia de la América”, septentrional

- (1813) <http://www.ordenjuridico.gob.mx/Constitucion/ACTA.pdf>
- Annino, Antonio et.al.(1994), *De los imperios a las naciones*, Zaragoza, Iberoamérica.
- Annino, Antonio (1995), “Cádiz y la revolución territorial de los pueblos mexicanos 1812-1821”, In Antonio Annino(Ed.), *Historia de las elecciones en Iberoamérica, siglo XIX de la formación del espacio político nacional*,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Ávila, Alfredo and Guedea, Virginia(2007), “De la Independencia nacional a los procesos autonomistas novohispanos: balance de la historiografía reciente”, *Debates sobre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 Manuel Chust y Antonio Serrano (ed.), Iberoamericana, pp. 255-276.
- Ávila, Alfredo(2002), *En nombre de la nación. La formación del gobierno representativo en México*, México, Taurus.
- “Bandos sobre la erección y anuncio de la instalación de la Primera Junta Nacional de Zitácuaro”(21 de agosto de 1811), <http://www.memoriapoliticademexico.org/Textos/1Independencia/1811BJZ.html>.
- Bethell, Leslie(2000), *Historia de América Latina. La Independencia*(Vol. 5), Barcelona, Crítica.
- Brading, David(1988), *Los orígenes del nacionalismo mexicano*, México, Era.
- Calleja, Félix María(1811), “Proclama de Félix María Calleja en Guanajuato, contra la instalación de la Junta de Zitácuaro”, <http://www.memoriapoliticademexico.org/Textos/1Independencia/1811-P-VS-JZ-FMC.html>
- “Carta de la Junta de Zitácuaro al rebelde Morelos”(4 de septiembre de 1811), <http://www.memoriapoliticademexico.org/Textos/1Independencia/1811-JZ-M-FVII.html>
- Chust, Manuel(1999), *La cuestión nacional americana en las Cortes de Cádiz*, Valencia, Centro Francisco Tomás y Valiente UNED Alzira-Valencia, Fundación Instituto Historia Social.
- Chust, Manuel and Serrano, José Antonio(2007), “Nueva España versus México historiografía y propuestas de discusión sobre la Guerra de Independencia y el Liberalismo doceañista”, *Revista complutense de historia de América*, Vol. 33, pp.15-33.
- Guedea, Virginia(1992), *En busca de un gobierno alterno: los Guadalupe de México*,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_____(1998), *Textos insurgentes, 1808-1821*, México, D.F.: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Guerra, François-Xavier(1993), *Modernidad e independencias: ensayos sobre las revoluciones hispánicas*,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_____(1995), *Las revoluciones hispánicas independencias americanas y liberalismo español*, Madrid, Editorial Complutense.
- Hidalgo, Miguel(1810a), “Comisiona Miguel Hidalgo a José María Morelos para que insurreccione la costa del sur”, http://www.biblioteca.tv/artman2/publish/1810_115/Comisiona_Miguel_Hidalgo_a_Jos_Mar_a_Morelos_para_que_insurreccione_la_costa_del_sur.shtml
- _____(1810b), “Decreto de Miguel Hidalgo ordenando la devolución de las tierras a los pueblos indígenas”, http://www.biblioteca.tv/artman2/publish/1810_115/Decreto_de_Miguel_Hidalgo_ordenando_la_devoluci_n_130.shtml
- _____(1810c), “Manifiesto de Miguel Hidalgo en el que propone la creación del Congreso Nacional”, http://www.biblioteca.tv/artman2/publish/1810_115/Manifiesto_de_Miguel_Hidalgo_en_el_que_propone_la_131.shtml
- Ibarra, Ana Carolina(2004), “Reconocer la soberanía de la nación americana, conservar la independencia de América y restablecer en el trono a Fernando VII: la ciudad de Oaxaca durante la ocupación insurgente(1812-1814)”, Ana Carolina Ibarra(coord.), *La independencia en el sur de México*, México, Facultad de Filosofía y Letras, UNAM.
- Lopez Rayón, Ignacio(1812), “Elementos Constitucionales circulados por el señor Rayón”, <http://www.memoriapoliticademexico.org/Textos/1Independencia/1812ECR.html>
- Lopez Rayón, Ignacio and José María Liceaga(1811), “Exposición de Don Ignacio Rayón y Don José María Liceaga sobre los motivos de la rebelión”, <http://www.memoriapoliticademexico.org/Textos/1Independencia/1811EIJ.html>
- Macías, Anna (1973), *Génesis del gobierno constitucional en México: 1808-1820*, México,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 Morelos, José María(1811), “José María Morelos escribe a don Ignacio López Rayón, brindándole su apoyo entusiasta para la instalación de la Suprema Junta Gubernativa”, http://www.biblioteca.tv/artman2/publish/1811_114/Jos_

- Mar_a_Morelos_escribe_a_don_Ignacio_Lopez_Ray_n_brindándole_su_apoyo_entusiasta_para_la_instalación_de_la_Suprema_Junta_Gubernativa.shtml
- _____(1812a), “Morelos insinúa a Rayón, por primera vez, la idea de transformar la Junta en lo que un año más tarde sería el Congreso de Anáhuac”, http://www.biblioteca.tv/artman2/publish/1812_113/Morelos_insin_Ray_n_por_primera_vez_la_idea_de_transformar_la_Junta_en_a_a_lo_que_un_a_o_m_s_tarde_ser_a_el_Congreso_de_An_huac.shtml
- _____(1812b), “Advertencias de Morelos a los Elementos Constitucionales de Rayón”, <http://www.memoriapoliticademexico.org/Textos/1Independencia/1812AME.html>
- _____(1813a), “Primera convocatoria del congreso”, http://www.biblioteca.tv/artman2/publish/1813_112/Primera_convocatoria_de_Jos_Mar_a_Morelos_para_la_reunión_del_Congreso_en_Chilpancingo_el_siguiente_8_de_septiembre.shtml
- _____(1813b), “Sentimientos de la Nación” en Virginia Guedea(ed.)(1998), *Textos insurgentes, 1808-1821*, México, D.F.: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p.133-135.
- Peset Reig, Mariano(2014), *La constitución de Apatzingán de 1814 : sentido y análisis de su texto*, Mexico, Benemérita Universidad Autónoma de Puebla; Educación y Cultura; Archivo General de la Nación.
- Quijada, Monica(2003), “Qué nación? Dinámicas y dicotomías de la nación en el imaginario hispanoamericano, In Antonio Annino & François-Xavier Guerra(Eds.), *Inventando la nación*,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p. 287-315.
- Rabasa, Emilio O.(1994), *Historia de las constituciones mexicanas*, Mé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Rieu-Millan, Marie Laure(1990), *Los diputados americanos en las Cortes de Cádiz*,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 Rojas, Rafael(2003), *La escritura de la Independencia*, México, CIDE; Taurus.
- Tutino, John(1990), *De la insurrección a la revolución en México*,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Van Young, Eric and Reyes Vega, Rossana(2006), *La otra rebelión : la lucha por la*

- independencia de México, 1810-1821*,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Villoro, Luis(2002), *El proceso ideológico de la revolución de Independencia*, México, Cien de México.
- Xavier Mina, Francisco(2007), “A los españoles y americanos” in Virginia Guedea (ed.), *Textos insurgentes(1808-1821)*, México, UNAM.

박수경

서울대학교
gmfma99@naver.com

논문투고일: 2018년 3월 18일
심사완료일: 2018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26일

From New Spain to Mexico: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Discourses during the War of Independence

Soo Kyou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Soo-Kyoung(2018), "From New Spain to Mexico: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Discourses during the War of Independence",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1), 95-124.

Abstract The Latin American Wars of Independence in the early 19th century refers to the breakup of colonies and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s. This process began when the Junta Provisional was organized to respond to the crisis of the Spanish royal regime in 1808. However, the criollo of the colonized states who demanded the formation of the Junta Provisional did not demand immediate independence. The criollo who were influenced by the Spanish liberalism ideology requested the autonomy of the colonized states but they did not actively deny the Spanish king Fernando VII. The South American Wars of Independence progressed based on the Junta Provisional which was comprised of the local elites whereas the War of Independence in New Spain broke out from the 1810 public revolt. Ironically, the War of Independence in New Spain ended as the First Mexican Empire. However, the discussions on public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system, which were brought up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war, from 1810 to 1815, showed the foundation process of Mexico. After the First Mexican Empire, which disappeared in merely 2 years, the United Mexican States was based on the new political concept which came to the fore during the dynamic process of the war. The various political standpoints which appeared in the first half of the War of Independence are important connection points for understanding the middle processes - the breakup of colonies and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War of independenc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history. For this aim, it will be stated that public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system are the new political concepts -the background of the foundation of Mexico- by analyzing the political standpoints of Miguel Hidalgo, Ignacio López Rayón, and José María Morelos who led the main force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war.

Key words New Spain, Mexico, War of Independence, Miguel Hidalgo, Ignacio López Rayón, José María Morelos